

사회

# “입사지원서 키·부모학력 왜 적나요”

## 기업들, 구직자 불필요한 신상정보 요구 여전

### 불쾌감 불구 불이익 받을까 마지 못해 기입

#1. 광주 모 대학생 박모(여·25)씨는 하반기 취업 시즌을 맞아 최근 국내 한 기업에 지원했다가 화들짝 놀랐다. 회사 측이 제시한 인터넷 지원서에 키와 몸무게를 입력해야 했기 때문. 박씨는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체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회사 측이 원하는 대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2. 취업준비생 김모(29)씨는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가 지원했던 상당수의 기업이 부모의 학력이나 직장 등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요

구한 탓이다. 얼마 전 지원한 한 기업의 입사지원서에는 부모 재산과 연봉 등 지나치게 자세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돼 있었다.

본격적인 하반기 취업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입사지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정보나 가정 환경을 묻는 기업들의 구태의연한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직자들은 불합리한 정보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사 전형에 감점이 될 것을 우려, 별다른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국내 일부 기업이 요구하는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는 구직자

의 본적, 종교, 키, 몸무게 등이다. 적지 않은 기업이 이들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입사 지원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채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지원자의 능력은 물론 개인의 직접적인 신상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직 당사자가 아닌 부모의 재산·연봉 및 학력, 직장·직위 등 주변 배경까지 샅샅이 묻는 것은 너무나 처사라는 반응이다.

더욱이 구직자들 중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의 경제적 기반 및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는 불쾌감을 넘어 수치심마저 느끼지만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다.

기업들의 구직자에 대한 무리한 정보요구는 직위 채용시 요구할 수 있는 구직자의 개인 신상정보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나 제도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구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기재를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으나 최근 소관위원회의 대안폐기 결정으로 마비된 상태다.

취업준비생 한모(27)씨는 “상당수 기업들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볼 때면 ‘훌륭한 능력을 갖춘 지원자를 뽑으려는 것이지, 뛰어난 배경을 갖고 있어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를 찾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목포해경 또 4명 살렸다

## 신안 자은도 침수 어선 구조

풍랑 속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선박을 안전하게 예인해 15명의 선원을 구조한 목포해경(광주일보 9월22일 6면)이 이번에는 침수된 선박에 타고 있던 4명의 선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22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9시35분께 신안군 자은도 신성리 해안가에서 8.5급 연안자망 광명호가 원인 모를 침수로 좌주(앞가)나 모래가 많이 쌓인 바다에 배가 걸리는 현상)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신안군 비금면 원경항에서 4명의 선원을 태우고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했던 광명호는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회항하던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기관실과 선원 침실 등이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경비정 단정을 이용해 4명의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고 어둠이 깔려 긴박한 상황이었으나 침착하게 접근한 해경은 구조에 성공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지난 20일에도 신안군 비금도 서쪽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29급 어선을 예인해 15명을 구조해내다가 하만 해 12월에는 침몰중이던 화물선에서 15명의 목숨을 구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o@

# 나원침 (8401) 김종두



# 아이 키우기 두려운 복구

## 청소년 성범죄 전국 3위... 5년간 405건

광주 지역이 전국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2010년 광주북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만 405건의 범죄가 발생, 전국 경찰서 중 3위를 차지했다.

지방경찰로는 이 기간 전남이 1447건, 광주가 1386건으로 각각 6위와 8위에 해당했다. 전남에서

는 순천이 237건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화학적 거세, 신상 공개 등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이 도입됐지만 성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훨씬 더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더욱 엄격한 처벌과 신고를 향상을 유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차량 결함·급발진 발견 안돼”

## 백화점 주차장 승용차 추락 사고 조사 결과

광주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 사고(광주일보 8월29일 6면)와 관련,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동부경찰은 22일 백화점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한 오피러스 승용차 분석결과 별다른 결함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승용차에서 급발진의 흔적이나 제동장치 불량 등의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주차장 벽면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차용역 직원 백모(26)씨가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가 벽을 뚫고 지하 6층으로 추락해 백씨가 숨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나주 가축분뇨 시설 허가

## 광주고법, 원고 청구 기각

불허와 허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전남 나주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2일 박모씨 등 나주시 부덕동 주민 12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건축허가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영농조합법인은 다시 분뇨처리 시설 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

22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개막한 '제5회 광주 장애인 생활체육 대축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화합을 다지기 위한 '공 이어 넘기기' 게임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제2순환도로 앞차량서 떨어진 물건에 사고 났다면 피해 보상은?

# 관리업체 책임이나 운전 부주의나

정모(61)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의 광주 '03서XXXX'호 BMW 승용차로 제2순환도로 지산터널을 진입하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타이어에 뭔가 걸리는 느낌을 받은 뒤 차량이 심하게 요동치며 전복 위기가 갔다가 간신히 멈춰선 것이다.

사고 원인은 건설현장의 대형 트럭이 짐칸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20cm 길이와 두께의 바(bar)다.

대형 트럭에서 흘린 것으로, 출퇴근 차량이 몰렸을 시간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사고 뒤 정씨의 신고로 3-1구간 관리업체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소속 차량이 주위를 정리하면서 사고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사고로 앞바퀴와 범퍼 등이 파손되면서 입은 300여 만원의 피해를 누가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문제로 정씨와 관리업체 간 마찰이

벌어졌다. 제2순환도로 유료구간에 사고가 난 이상 정씨는 당연히 관리업체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관리업체는 정씨가 사고원인을 제공한 대형 트럭 운전자를 밝혀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정씨는 “도로관리의 의무가 있는 관리업체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 뒤 대형 트럭을 찾아내 구상권을 청구할 줄 알았는데 피해

자에게 떠넘기는 등 너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업체는 야간 4명, 주간 2명 등 총 6명이 24시간 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나 모든 낙하물을 즉각 처리하는 것은 중과부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관리업체 관계자는 “3~5분 간격으로 차량이 순회하지만 그 시간 내에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진 것 같다”며 “운전자가 보류로 처리한 뒤 보험회사에서 관리업체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 D-day 100일 출제유형을 잡아야 합격이 가까워진다!! =

## 2012 학년도 대학편입

# 김영과 함께

#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 기여편이하인 모인보구권

#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 www.kimyoung.co.kr 개강: 10월 4일

상위권 대학편입 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 열쇠, 지방유일 실감의

2013 편입영어 첫걸음

편입영어 (대학별 출제경향 완전정복)

편입수학 - 공학수학 이론/문풀

편입영어 (왕초보를 위한 문법/ 어휘이론)